

# 부소산성[扶蘇山城]

## 백제 마지막 왕도, 사비를 수호한 산성



### 1 개요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시대(538~660) 궁궐의 배후산성이다. 사적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 시대에는 사비성(泗沘城) 또는 소부리성(所扶里城)이라고 불리었다. 충청남도 부여군 시가지 북편에 있는 부소산에 위치한다. 백제 성왕(聖王)이 부여로 천도하며 사용된 백제의 왕성(궁궐)이자, 적의 침공을 막는 산성이었다. 현재 부소산 남쪽에 접해있는 관북리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 2 백제의 사비 천도와 부소산성(扶蘇山城)

본래 백제는 지금의 서울에 도읍하였으나, 고구려에 쫓겨 웅진(熊津 : 지금의 공주)으로 도읍을 옮기게 된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웅진은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을 대응하기에는 좋은 요충지로서 방어에는 유리할 수 있었지만, 한 국가의 수도로 기능하기에는 지리적으로 협소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백제는 이후 중국의 남조(南朝), 특히 양(梁 : 중국 남조에서 건국된 세 번째 왕조로서 존속 기간은 502~557년)과의 친밀한 교류 [관련사료](#) [관련사료](#) [관련사료](#) [관련사료](#) 를 통해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 문화를 꽃피웠으며, 점차 국력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방어 목적만이 아닌 왕도로서 기능

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성의 필요성이 대두하며, 웅진 남쪽의 사비(泗比: 지금의 부여)가 주목을 받았다. 마침내 538년, 성왕(聖王, 재위 523~554년)은 도읍을 사비[일명 소부리(所夫里)]로 옮기고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南夫餘)라고 고쳤다. [관련사료](#) 이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사비는 약 123년 동안 백제의 도읍이 되었다.

이처럼 사비로의 천도는 고구려의 침략을 피해 급하게 이동한 웅진으로의 천도와는 달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점은 당시 사비 도성 전체의 모습과 구조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산을 따라 나성(羅城)을 두르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백마강이 흘러 자연 지리적인 면에서도 도성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나성 동쪽 바깥에 망자(亡者)의 공간을 두고(능산리 고분군), 당시 중국과 일본의 도성처럼 왕성을 도성의 북쪽에 위치시켰으며, 많은 사찰이 도성의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길게 지나가는 도로에 맞춰 건설되었다. 왕궁 남쪽을 향해 마치 중국 도성의 주작대로(남북대로)와 같이 길게 뻗은 도로의 흔적이 확인된다. 중국의 도성제와 완벽히 같지는 않지만, 건물지가 정렬되어 있고 구획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도성이 계획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도성의 북쪽에 위치한 왕성이 당시 사비성이라고 불린 부소산성이다. 부소산성은 부여 부소산에 위치하며, 평상시에는 왕궁의 후원으로, 위급할 때는 방어성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즉 엄밀히 말해 부소산성은 수도인 사비의 배후산성이기 때문에, 부소산성만을 사비성이라고 칭하기는 어렵다. 당시의 사비성은 이 부소산의 바로 남쪽에 있는 왕궁지인 관북리 유적을 포함한 모습일 것이다.

특히 부소산성 내에서 대통(大通)이라고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는데, 이 대통은 중국 남조 국가인 양이 527~529년에 사용한 연호(年號)이다.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시점이 536년이므로, 기와는 이보다 10년 정도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 된다. 이 역시 사비로 천도하기 위해 미리 건물에 올릴 기와를 제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 3 왕도 수호의 역할을 지닌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사비(산)성’ [관련사료](#) 혹은 ‘소부리성’ [관련사료](#) 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는 산성이 위치한 산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부소산성은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 멸망할 때까지 도성의 중심 산성으로 왕도를 수호할 목적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데 비해 백제 시기의 부소산성(사비산성)에 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다. 백제와 관련하여 부소산성이 등장하는 기록은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킬 때의 기록 [관련사료](#) [관련사료](#) 과 백제 부흥운동군이 수도인 부여를 재점령하며 잠깐 등장한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멸망 당시 의자왕은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연합군이 공격해오자 바로 부여를 버리고 웅진으로 도망가고, 이후 사비성이 포위되자 남아있던 왕족과 백성들은 바로 항복하고 만다. [관련사료](#) 한편 백제 멸망 후,

백제 부흥운동군이 부소산성(사비산성)을 거점으로 삼아 신라에 대적하고자 했던 기록이 있다.

**관련사료** 관련 사례는 매우 단편적이지만 이를 통해 산성에 방어의 목적이 있었음은 짐작해볼 수 있다.

다만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을 백제 멸망 당시, 즉 정작 나라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주요 전장으로의 기능을 해보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 사료 속에서 부소산성의 진면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멸망 이후에도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으로 선택받은 모습에서 부소산성이 백제에 있어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 4 부소산성 내의 백제의 건축물

부소산성은 백제 왕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변의 유적들과 더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중요문화재 중 하나이다.

부소산성 내에 현존하는 백제 당시의 건축물은 성을 둘러싼 성벽과 문지(門址)가 있으며, 그 내부에 서복사지(西覆寺址), 군창지(軍倉址)와 병영으로 사용된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 그리고 낙화암(落花巖)이 있다.

### ① 성벽

산성의 축조 방식은 판축(版築 : 고운 자갈과 진흙을 엇갈려 다져 덮어주는 방법으로 마치 시루떡을 여러 장 쌓아놓은 것 같은 모습이 된다) 기법이다. 토사(土砂)가 흘러내리지 않게 지탱할 나무, 즉 영정주(永定柱)를 두 열로 세우고 그 안에 점질토와 화강토를 번갈아 가며 다졌다. 영정주를 사용하는 방식은 백제 토성의 특징 중 하나로, 백제 한성 도읍지의 왕성인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성벽의 바깥은 급경사로 성이 밀리지 않도록 할석(割石)을 이용해 보강하였다. 산성은 백제 이후에도 새로 쌓으며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산성 가운데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산성의 길이는 외곽선을 기준으로 2,495m이고, 바닥의 너비는 5~6m, 높이는 3m 내외이다.

### ② 문지(門址)

문지는 남문지와 동문지가 확인되며, 남문지가 산성의 정문이다.

### ③ 서복사지(西覆寺址)

충청남도 기념물 제161호로서 부소산성 서남부 언덕에 위치하며,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면적은 약 3,500㎡이다. 고고학 조사 결과, 가람배치는 1탑 1금당 식으로 전형적인 백제 사찰의 배치를 보이며, 특이하게도 강당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사비 시대의 절터는 대부분 평지나 약한 경사지인데 이 절터는 산의 능선을 따라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곳에서 금동제 허리띠, 연화문 와당, 인장와, 금동풍탁, 소조불상, 치미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금동제 허리띠는 왕과 같은 최고위 신분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물품이며, 잘 가공된 석재로 기단을 구축한 점 등에서 왕을 위한 사찰로 추정된다.

### ④ 군창지(軍倉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로서 부소산성 동쪽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발굴 결과 불에 탄 곡식

이 발견되어 군량미를 보관하던 창고나 피난 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다만 발견된 곡식은 조선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건물 중 ‘ㄱ’자 모양의 대형 창고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⑤ 병영으로 사용된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

부소산성 내부 서남편에서 백제시대 병영으로 사용된 수혈주거지가 3기 발견되었다. 수혈주거지는 다른 말로는 움집터라고 한다. 제3호 주거지의 경우 한 변의 길이 4m, 깊이 90cm 정도이며 내부에서 구들이 확인된다. 주거지 바닥에서는 금으로 만든 봉황 장식, 백제시대 와당을 비롯하여 기와, 토기, 철제 무기와 갑옷 조각 등이 나왔다. 동쪽의 군창지와 반대편이며, 건물이 목책이나 토성에 둘러싸인 점에서 군사시설로 추정된다.

#### ⑥ 낙화암(落花巖)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10호로서 백마강 가에 있는 높이 약 40m의 절벽이다. 삼천궁녀가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있는 장소이며, 그 모습이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여 후대에 ‘낙화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타사암(墮死岩)’이라고 한다. [관련사료](#)

## 5 백제 멸망 후의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이후 보수하거나 새로 쌓은 성벽을 통해 백제 멸망 이후 통일신라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산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성 주변에는 백제의 세 충신인 성충, 홍수, 계백을 모시는 사당인 삼충사(三忠祠), 낙화암에서 목숨을 바친 궁녀를 추모하는 고란사(皐蘭寺)와 궁녀사(宮女祠)가 있다. 그중 고란사는 궁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고려시대에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백제의 도성 사비와 부소산성에는 백제의 흔적이 남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가 되면 부여현의 관청 건물인 동헌(부여동헌)이 부소산성 초입에 세워졌으며, 왕명을 받들어 내려온 관리가 묵는 부여객사도 지어졌다. 이 밖에도 백마강 등 아름다운 부여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누각이 많이 세워졌다. 대표적으로 사비루(泗沘樓), 영일루(迎日樓), 반월루(半月樓), 사자루(泗(水+此)樓)가 있다.